

안녕하세요 위클리예요

[Weekly: 2026/05/18~2026/05/25]

2026.05.27

[로봇] HDS의 어닝콜

- 현대차, 보스턴다이나믹스 로드맵 공개. 현대모비스는 28년 미국에 3만대 액츄에이터 공장 설립
- 한국에서는 노동 쟁의 활동 확대. 자동화에 대한 수요 확대 전망
- 중국 딥로보틱스가 상하이 거래소에 IPO 심사 통과. 유니트리 등 중국 로봇 IPO 가속화

[방산] 4월 수출 데이터 업데이트

- 미국의 탈유럽 움직임. 나토 사령관도 미국의 유럽 추가 철수를 예상
- 중동 사태, 미국과 이란 휴전안 합의 근접
- 미국, 저가 미사일 도입 확대 움직임. 안두릴도 27년부터 미 육군에 바라쿠다 3천기 공급

[조선] 캐나다에 간 도산안창호함

- 도산안창호함 14,000만km 항해해 캐나다 빅토리아주 입항
-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교섭의무 없다" 대법원 판단에 노조 리스크 완화
- 카타르 LNG, 중동 사태 여파로 신조선 장기용선계약 개시 및 선박 인도 연기 조항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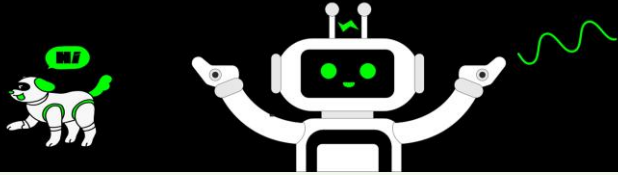
[항공] 6월 유류할증료 인하

- 6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하, 대한항공 인천~뉴욕 왕복 112만원 → 90만원
- 통합 진에어 내년 3월 출범 가닥, LCC 시장 지각변동 조짐
- 中 상무부, 미국 보잉사 항공기 200대 구매 공식 발표

[해운] 벌크 강세, 다음 변수

- 美 법무부, 글로벌 시장 '95% 독점' 中 해운 컨테이너 카르텔 전격 기소
- 글로벌 컨테이너선 신조 수주잔량 1,300만 TEU로 사상 최고 기록
- HMM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 한국 첫 호르무즈 해협 통과

안녕하세요 로봇 위클리예요



Weekly Keyword

HDS의 어닝콜

일본 HDS의 어닝콜에서 휴머노이드 향 부품 매출액 전망치가 공개됨. 2030년 기준 133억엔으로 기대치 대비 다소 적은 수준이나, 보수적인 숫자로 판단되며, 북미 수요 여하에 따라 변동 가능성 큼.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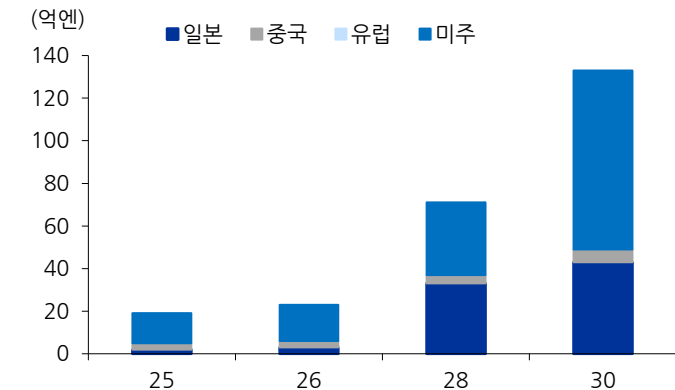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27)

[HDS의 어닝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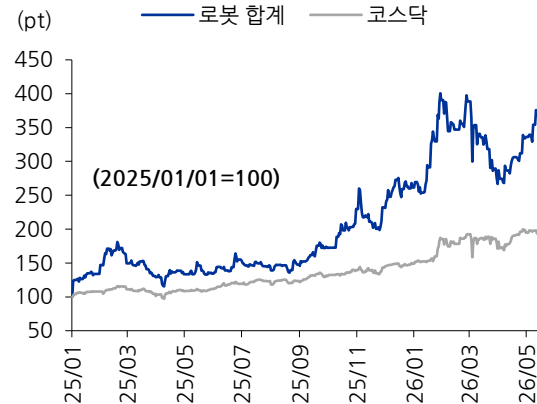
- 일본의 대표 감속기 업체 하모닉드라이브시스템(HDS)는 향후 5개년 중기 경영 계획에서 AI 로봇, 항공·우주·방위, e모빌리티를 집중 성장 영역으로 지정. 고객사의 초기 설계 및 컨셉 단계부터 기술 협업을 심화하여 '키 디바이스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굳힐 계획.
- AI 로봇 수요는 북미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며, 공급망을 미국과 일본 내에서 완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코멘트. HDS의 휴머노이드 매출 전망은 2025년 약 19억엔 수준에서 2030년 133억엔을 전망. 다소 보수적인 수치이나, 북미 시장에서의 AI 로봇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앞당겨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공급 능력을 맞추는 데 집중할 계획.

Key Chart: HDS의 휴머노이드 향 부품 매출액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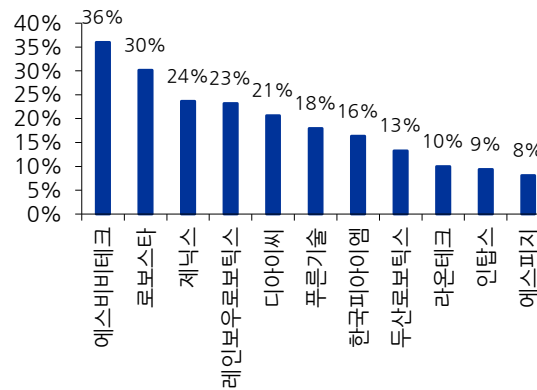


자료: HDS, 유진투자증권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wise

로봇 주요 뉴스(05/18~05/25)

[전통 로봇(산업용/서비스)]

- 두산로보틱스, 유럽지사 확장 이전
- 나우로보틱스, 에이피알과 로봇 자동화 설비 계약
- 큐렉소, 파라과이에 수술로봇 '큐비스-조인트' 공급
- 큐렉소, 인도에 85억 규모 인공관절수술로봇 공급
- 클로봇, 미라텍·아이로브와 북미 물류자동화 공략
- 뉴로메카, AI 수술로봇 국가 R&D 과제 기관 선정
- 쿠팡, 용인에 '맨리스(Manless) 자동화 센터' 구축

[휴머노이드]

- LG CNS, 컬리 물류센터에 휴머노이드 투입 협력

[부품/SW/기타]

- 현대차그룹, JPM 컨퍼런스서 로봇 로드맵 공개
- 과기부, 504억원 투입해 30년까지 휴머노이드 개발
- 레인보우로보틱스, '로봇 무인매장' 사업목적 추가
- 에스비비테크, 12억 규모 휴머노이드 감속기 계약
- 인탑스, 위로보틱스와 손잡고 웨어러블 로봇 양산
- 유진로봇, 밀레그룹서 173억 전략적 투자 유치

[Global]

- Figure.AI, "인간 VS 로봇" 10시간 택배 작업 대결
- 로커스 로보틱스, 로봇 파지기술 기업 벡세라 인수
- 보스턴다이나믹스 '스팟' 미국 경찰 공급계약 철회
- 中 엘리트로봇, 신형 휴머노이드 발표
- 中 딥로보틱스, 스타마켓 IPO 심사 통과
- 中 '국가 휴머노이드 훈련기지' 운영 돌입
- 英 휴머노이드, 보쉬와 협력해 로봇 생산 확대



Weekly Keyword

4월 수출 데이터 업데이트

4월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3.8억불로 견조한 흐름을 지속. 전월과는 다르게 탄류 수출 감소하고, 이집트 향 자주포 부품과 폴란드 천무 모듈, 인니향 훈련기 수출액이 크게 기여.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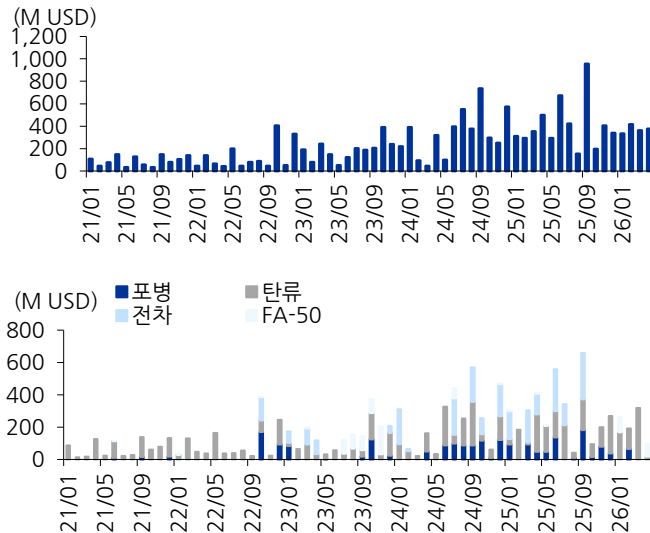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75)

[4월 수출 데이터 업데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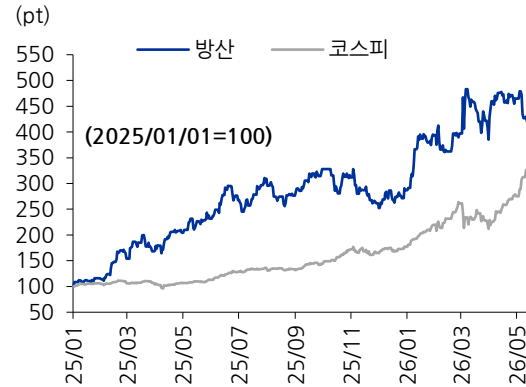
- 4월 한국의 방산 수출은 3.8억불을 기록하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감(3월 3.6억불). 4월에는 이집트 향 자주포 부품품 수출(1.5억불)이 크게 늘어났고, 폴란드 향 천무 모듈, 인도네시아 향 T-50 수출이 기여.
- 여전히 2차 사업으로 넘어온 폴란드 K-2, K-9 물량 인도는 요원한 상황. 하반기에 본격화될 전망. 3월까지 꾸준히 인식되었던 중동향 탄 수출은 4월에는 공백. 5월 이후 수출 동향에 주목 필요.

Key Chart: 한국 방산 수출액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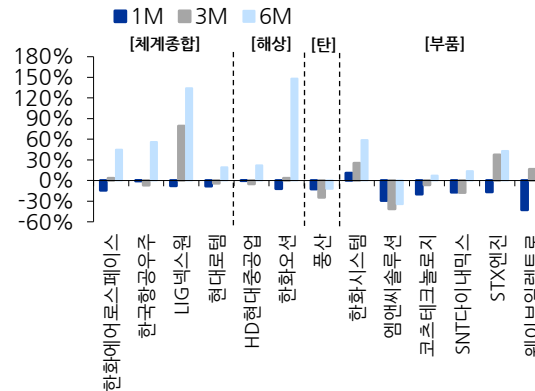


KITA, 유진투자증권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Quantiswe

방산 주요 뉴스(05/18~05/25)

[수주/계약]

- 한국, SM-6 함대공 미사일 전격 도입 확정

[기업별 이슈]

- 차세대 상륙돌격장갑차 'KAAV-II' 최초 공개
- LIG D&A, 캐나다 당대표 출신 '거물' 로비스트 협력
- 인니 재무장관, "11조원 KF-21 관련 예산 이미 확보"
- 대한항공 군용기 MRO 힘입어 수주잔고 4.7조 돌파
- 케이피항공산업 코스닥 스펙상장

[기타]

- 방사청 "2029년 국방 반도체 국산화율 50% 달성 목표"
- 한미동맹, '드론 동맹'으로 진화. 드론 LOI 체결
- 파블로항공, 기술성 평가 고배

[글로벌]

- 미국, 유럽 주둔 육군 여단 규모를 4개에서 3개로 감축
- 나토 사령관 "미군의 유럽 추가 철수 예상"
- IPO 앞두고 독일 KNDS 지분 전쟁 격화
- 영국, GCAP에 12조 규모의 자금 지원 패키지를 준비
- 벤츠 CEO "방산 분야 확대 준비됐다"
- 美, \$1M 미만의 드론/순항 미사일 요격기 개발 추진
- 안두릴, 27년부터 미 육군에 바라쿠다 3천기 공급
- 미 공군 YFQ-48A, 활주 시험 후 첫 자율 비행 임박
- 미 해군 MQ-25 스텔레이, 소량 초기 생산 승인
- 캐나다 참수함 이어 전차장갑차 도입사업 시동
- 인니,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3대 또 도입
- 일본, 필리핀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로 격상



Weekly Keyword

캐나다에 간 도산안창호함

3월 말 한국을 출발한 도산안창호함이 2달 항해 끝에 캐나다 빅토리아주에 도착. 장거리 항해 능력을 입증. 27일부터는 캐나다 방산 전시회. 수주 발표까지 한 달 남은 상황에서 막판 경쟁 돌입.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조선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55)

[캐나다에 간 도산안창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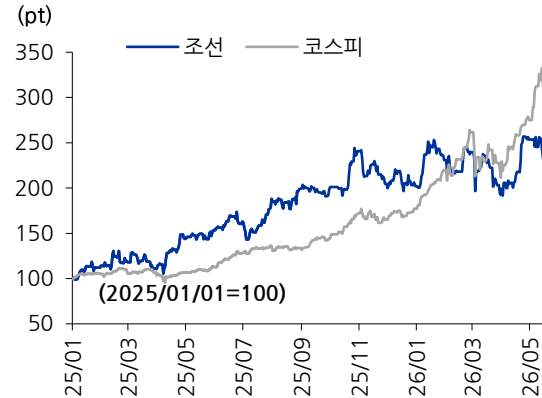
- 3월 25일 진해항을 출발한 도산안창호함이 2달여 항해 끝에 캐나다 빅토리아주에 입항. 14,000km 장거리 항해 능력 입증. 항해 기간 중 99.5% 이상을 수상 노출 없이 잠항으로 수행.
- 하와이에서 캐나다 승조원 2인도 동승. 해당 승조원들은 도산안창호함의 넓은 거주 공간과 첨단 기술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
- 캐나다 잠수함 수주 발표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번 항해가 긍정적 영향을 미쳤기를 기대. 27일부터는 캐나다 최대 방산 전시회 CANSEC 개최. 한국과 독일의 막판 수주 경쟁 흐름 주목.

Key Chart: 캐나다에 도착한 도산안창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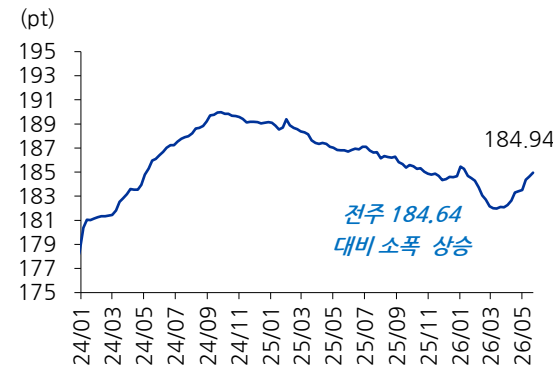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국내 조선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신조선가 추이



자료: Quantivise, Clarksons

조선 주요 뉴스(05/18~05/25)

[상선/해양]

- 삼성중공업 \$251.2M LNGC 3척 수주
- HD현대상호 \$119.5M VLAC 6척 수주
- 한화오션, 팬오션 7,900억 규모 유조선 4척 수주 전망
- 한국카본, 한화오션과 720억원 보냉자재 공급 계약
- HD현대중공업, 테라파워에 SMR 주기기 공급 우협

[특수선]

- 도산안창호함 1만 4,000km 가로질러 캐나다 입항
- 도산안창호함, 태평양서 加 해군과 첫 직접 교신 성공
- 이용철 방사청장 캐나다行. CPSP 앞두고 총력전
- 김경률 해군총장, 탐시 캐나다 해군사령관과 양자대담
- 한화오션, TKMS '우주발사 카드'에 加 발사 산업 투자
- 한화파워, 캐나다 에너지 인프라 기업 펴비나와 협력
- 해군, 합참에 핵추진잠수함 소요제기서 제출

[기타]

- "HD현대중, 하청노조 교섭의무 없다". 대법 판단
- HD현대마술, AEG와 데이터센터 발전 엔진 MRO MOU
- 한화, 필리핀조선소에 5,310억 투자

[글로벌]

- 英 차세대 호위함 '조립 순서 오류로 대폭 지연
- 그리스, 伊 FREMM급 호위함 4척 도입 승인
- 스웨덴, Naval Group의 프랑스 FDI 호위함 선정
- 미국 상원의원들 '한국서 군함 건조' 구상 반대
- HII, '황금함대 주력' 트럼프급 전함 최종조립 담당
- 카타르에너지, LNG선 인도 연기 조항 발동



Weekly Keyword

6월 유류할증료 인하

6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대한항공 기준 전월 대비 최대 20% 인하. 이는 항공 노선 축소와 차익거래 기회에 따른 정유사들의 공급 확대에 따른 항공유 가격 하락에 기인.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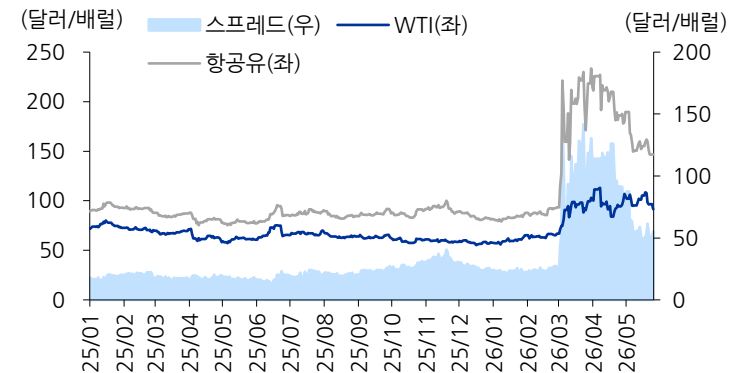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75)

[6월 유류할증료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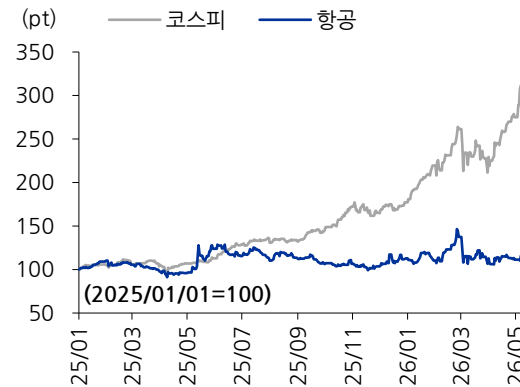
- 6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최고 단계인 33단계에서 27단계로 인하.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인 싱가포르 항공유(MOPS) 4/16~5/15 평균 가격이 배럴당 약 172달러로, 전월 약 215달러 대비 낮아진 영향. 5월 들어 美-이란 협상 기대로 원유 가격이 하락했고, 3~4월 급등했던 항공유-WTI 스프레드도 완화되며 항공권 총액 부담은 일부 낮아질 전망.
- 다만 5/25 기준 항공유 가격은 147달러/배럴로 여전히 전쟁 이전 대비 높은 수준. 여름 성수기 수요와 환율 부담, 중동 리스크 재확대 가능성이 감안하면 비용 부담 해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 현 수준의 항공유 가격이 6월 중순까지 유지될 경우, 7월 유류할증료는 6월 대비 추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

Key Chart: WTI & 항공유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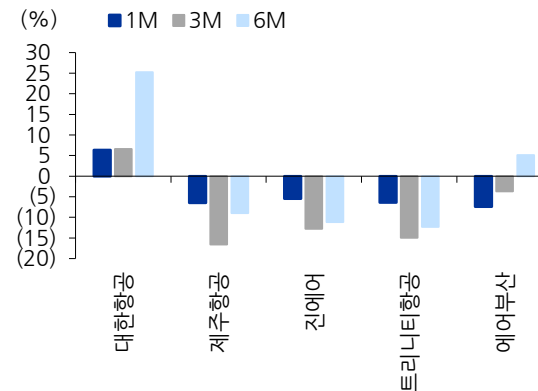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항공 주요 뉴스(05/18~05/25)

[여객/화물]

- 6월 유류할증료 인하, 美 왕복 기준 최대 50만원 싸진다
- 국내선 제주 노선, 하계 스케줄부터 공급 좌석 급감 예정
- 고환율에 LCC 유류할증료 부담 증가, FSC보다 비싸질수도

[기업별 이슈]

- 대한항공 7,300억원 투자, 영종 항공 MRO 허브로 뜬다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막바지, 남은 과제는 소비자 설득
- 티웨이항공 → 트리니티항공, 국내 변경면허 발급 완료
- 에어프레미아, 7월 한달간 객실승무원 대상 무급휴직 실시
- 통합 진에어 내년 3월 출범 가닥, LCC 시장 지각변동 조짐
- 이스타항공, 신한EZ손보와 여행자 보험 서비스 강화 추진
- DHL익스프레스, 중량화물 전문 항공특송 솔루션 출시

[기타]

- 항공업계 서비스 경쟁 다변화, "비행만으로 부족하다"
- 싱가포르 항공 MRO 산업 성장과 우리 기업 진출 가능성

[글로벌]

- 中 상무부, 미국 보잉사 항공기 200대 구매 공식 발표
- 베트남 다낭공항, 국제선터미널(T2) 확장사업 착공
- 베트남, 항공사 지연·결항시 보상액 25% 인상 추진
- 민주공화국 에볼라 급속 확산, 항공 중단에 국제사회 비상



Weekly Keyword

벌크 강세, 다음 변수

벌크 시장은 비수기에도 강세 지속. 향후 시장의 향방은 기니발 물동량. 시만두 광산 철광석 램프업은 톤마일에 +, 보크사이트 수출 제한에 따른 물동량 감소는 운임에 하락 압력을 가할 것으로 전망.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RA 임범수

02) 368-6168_beomsu@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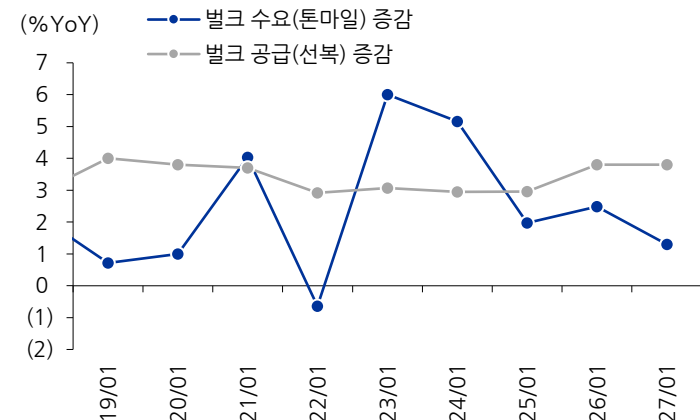


What's new? - 해운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8)

[벌크 강세, 다음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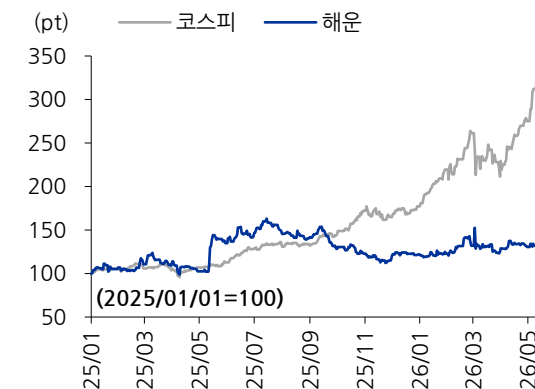
- 벌크 시장은 계절적 비수기에도 강세를 유지 중. 1Q26 Capesize 평균 운임은 약 23,000달러/일로 +75%yoy 상승했으며, 5월 중순 벌크선 평균 운임도 약 21,000달러/일로 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 중국의 견조한 철광석 수입과, 호주 브라질 수출 증가에 따른 톤마일 확대 영향.
- 향후 핵심 변수는 기니발 물동량. 철광석의 경우 호주 대비 약 3배 긴 항해 거리와 시만두 광산의 견조한 램프업(2026년 누적 460만톤, 5월 약 190만톤으로 월간 최대 수준)으로 톤마일에 긍정적 영향 지속. 다만 보크사이트 수출 제한은 운임 하방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Veson에 따르면 기니 정부가 1.5억톤의 수출 CAP 적용 시, 보크사이트 무역에 필요한 Capesize 선박 수는 약 46척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Key Chart: 벌크 수급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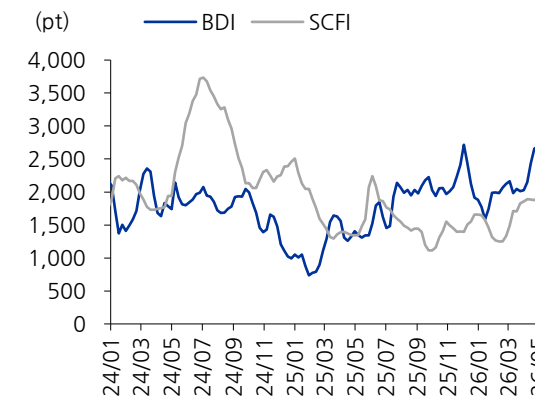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유진투자증권

국내 해운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해상운임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s

해운 주요 뉴스(05/18~05/25)

[벌크선]

- Capesize 벌크선 충돌, 싱가포르 해협 항행 안전 문제 부각
- 울산항만공사, 日 주요 항만과 협력 강화·물동량 유치

[탱커/가스선]

- 인도, 2040년까지 원유 운송 선박 112척 확보 추진
- HMM 유조선 위너호, 호르무즈 탈출했지만 안심은 금물

[컨테이너선]

- 글로벌 컨테이너선 신조 수주잔량 1,300만TEU로 사상 최고
- HMM 1분기에만 선박에 1.5조 투자, 단일 분기 역대 최대
- HMM 부산으로 본사 주소 이전, 직원 이동 시기는 미정
- 中 Sinotrans, 컨테이너선 12척 대규모 선대 확장계획 발표

[기타]

- 美 이란, 60일 휴전연장 및 호르무즈 개방 MOU 근접
- 호르무즈 열려도 유가해운 정상화까지는 수개월 전망
- 美, 글로벌 시장 95% 독점한 中 해운 컨테이너 카르텔 기소
- 美 2차 제재 경고에 글로벌 해운사들 쿠바 운항 중단
- IMO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 확정, 2028년부터 의무 적용
- 부산항 환적 세계 2위, 산은 이전이 '1위-초격차' 관건
- 원양 운임 약세, 근해 반사이익으로 해운사 실적 '극과 극'
- 물류업계도 밸류업 시대, 일부 기업은 소극 행보 여전
- 현대글로벌비스, 세계 최대 PCTC '글로벌비스 리더호' 전격 투입
- Maersk 100% 에탄올 항해 성공, 해운 탈탄소 길 확대
- SK텔링크, HMM·팬오션 등과 스타링크 공급 계약 체결